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PLANT & MECHANICAL CONTRACTORS FINANCIAL COOPERATIVE OF KOREA

www.seolbi.com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주영업소, 이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찬재)은 광주호남 지점 관할 전주영업소를 이전하고, 지역 대의원 및 협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4일 개소식을 가졌다.

경영개선으로 조합의 경쟁력강화를 경영목표로 삼고, 끊임없이 내실 있는 설비조합, 조합원사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설비조합 운영으로 창립10주년을 맞이하는 2006년 제2의 도약을 준비중인 설비공제조합은 기존 영업소보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조합원사 사업장 밀집지역과 주차장 확보로 조합원사의 조합 이용을 용이하게 위해 이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정성조 회장((유)제일공영)은 인사말에서 「1인 근무 영업소로 전환하는 등 설비조합의 각고의 노력이 돋보이고, 안주하지 않고 조합원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에 박수를 보내면서 동시에 이러한 노력이 자칫 과잉되거나, 본래의 의도를 이탈할 경우 오히려 조합원사들에게 불편을 초래 할 수도 있으므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조합원사를 위해 변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조합원사의 경쟁력 강화가 곧 설비조합의 경쟁력강화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였다.

이찬재 이사장은 「경영개선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여러 가지 개선점과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사항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원사의 업무와 규모를 생각하여 일부 1인 영업소를 2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더욱 발전하는 설비조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이찬재 이사장은 조합원사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더욱 경쟁력 있는 설비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합원사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였다.

또한 설비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사들에게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를 전파하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조합 업무처리 전 각 조합원사에서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신용분석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대구경북지점 이 민 상

1. 연수교육 입소 전

8주간의 신용분석과정 연수교육 통보를 받고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론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수료는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부담감이 커져왔었습니다.

연수교육 통보를 받았을 땐 교육연수원 입소를 며칠 앞두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 할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몇 년 전 통신교육인 신용분석 기초과정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라면 어느 정도 기초지식을 가지고, 그나마 자신 있게 입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설비조합 관련업무 발전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합원사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설비조합을 구축하는데 일선에 서야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입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연수교육 입소 후

35도를 오가는 무더운 여름 8주간의 한국금융연수원에서의 신용분석과정 연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간접적으로나마 신용분석과정의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첫 강의에 들어갔습니다.

첫 강의부터 시작되는 익숙하지 않은 회계전문용어들,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넘겨져 가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정말 기초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따라가기조차 힘에 벽찰 정도의 강의에 캄캄하게 밀려오는 걱정과 부담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타이트한 연수일정과 단시간에 한 권씩 한 권씩 끝내야 하는 방대한 교과과정, 설 수 있는 여유조차 없이 매 과목마다의 평가, 그리고 높은 수준의 회계지식을 가지고 입소한 타 금융기관 연수생들의 준비된 모습을 보면서 한숨 끝에 앞으로의 연수과정에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오로지 연수교육기간동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하면서 서서히 연수교육에 적응을 하게 되었고 한 과목씩 이수해 나갔습니다.

8월 무더운 한여름의 연수일정을 걱정과 부담감으로 시작해서 바쁜 교육일정으로 시간가는 줄 모르게 교육을 받아 오면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땐 어느덧 싸늘한 체온을 느끼게 하는 10월의 가을을 접하게 되었고 짧고도 긴 연수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연수교육을 마치고

8주간의 연수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그만큼 성취감과 보람 또한 컸습니다.

설비조합 내부와 다른 매체가 아닌 우리 설비조합이 최선을 다해야하는 조합원사의 경영성 평가와 위험분석 대비, 정확한 평가로 조합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깨닫게 된 것 같아 정말 소중한 교육을 수료했다는 자부심을 갖은 동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의 조합미래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전문지식인으로서 한발 앞서 나가 다른 유사기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더욱 경쟁력 있는 공제조합을 구축해 나가야 할 사명감을 느꼈고, 치열한 경쟁사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뿌리가 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 2006년 조합의 전면 신용거래를 앞두고 설비조합에서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조합원사에게 도움이 되는 조합을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신용분석> 교육과정을 꾸준히 수료하고 있습니다. 7~8주간의 결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어려운 교육을 마친 대구경북지점 이민상 씨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성원을 보냅니다.